



New York in Conversation:

George Lois

Interview By 이우진 + Joseph Burwell



1951년 한국 전쟁은 조지 로이스(George Lois)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 방문이었고, 그 이래로 이제껏 한국 사람들과의 친분 역시 전혀 없었다. 그것이 그가 지난 3월에 있었던 그의 새책 출판 기념 강연에서 만난 한 명의 한국 디자이너를 기억하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그의 맨해튼 사옥에서 인터뷰를 시작할 때, 그가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본문은 미국의 50년대, 60년대 - 뉴욕, 매디슨 애비뉴 광고계를 이끈 거장, 조지 로이스와의 두 시간여에 걸친 대화이다. 그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상관 관계, 보기 좋은 배열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솔직하고 간결한 표현을 통한 보다 설득력 있는 콘셉트의 추출, 그리고 그의 많은 작업들의 배경이 된 그의 강한 신념의 출처, 이들이 그의 타고난 직관력과 더불어 빅아이디어의 광고로 승화되는 동시에, 인종차별주의, 섹시즘, 그리고 전쟁을 이슈로 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전형적인 질문과 답변의 인터뷰 형식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 낸 이 각각의 특별한 이야기들은 항상 무언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우리의 기대치를 훌쩍 넘어서는 마무리를 가져왔고,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한다.

Since his time as a soldier in the Korean War in 1951, George Lois has never been back to Korea. Neither has he had any other interactions or experiences with Korean creative people. That's why he remembered the Korean designer at his lecture in March about his new book, *Damn Good Advice*.

This text is from my two-hour conversation with George Lois, a creative pioneer in the New York Madison Avenue ad industry in the 50's and 60's.

He gave us a glimpse into the core of his convictions, around which many of his designs are based. In fact, George has a unique approach to design, which is less concerned with the tasteful arrangement of information, and more focused on straightforward concepts that often revolve around his convictions. He has an intuitive sense of how to grab your attention, and has used it to create ads for his clients' products as well as to provoke social changes on the issues of racism, sexism, and war.

We didn't always stick to the typical question-and-answer format, but we *did* always end up talking about something fascinating, unpredictable, and memorable.

1. George Lois with his father, Haralambos Lois, in front of the family florist shop in the Bronx, 1972

아버지

“Racist, Irish. 내 어린 시절은 인종 차별주의가 만발하던 아일랜드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시작되었지. 아마도 당신에게는 별반 큰 차이 없는 내용처럼 들리겠지만 말이야. 내 어린 시절을 보았던 1930년대, 인종 차별주의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지나치게 노골적인 것 이상이었지. 그러한 환경에서의 나는 플로리스트인 아버지를 가진 그리스의 소년이었고, 10마일 이내에 그리스 이민자 가족이라곤 단지 우리뿐이었어. 주변의 친구들은 나를 유럽 남부 출신자를 부르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인 greaseball이라 놀려댔고, 그에 맞서 백 번도 넘는 몸싸움, 그런 싸움을 나름대로 즐기면서 자랐지.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때 그는 젊은 흑인을 가게에 고용하여 꽃을 배달하는 트럭을 운전하게 했고—그 당시 사람들은 흑인들을 ‘Negroes’라고 불렀지—많은 이웃들이 찾아와 흑인을 고용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곤 했어. 어느 날 이웃 성당의 아일랜드계 천주교 신부가 우리 가게에 직접 방문한 일이 있었어. 아버지를 도와 대부분의 꽃 배달을 담당했던 나는 그 성당에 야자수를 배달하기도 하고, 가끔은 꽃을 빌려주기도 했지. 그것은 주말의 나의 주된 일과였고, 동시에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자면 성당은 큰 거래처 중에 하나였어. 그 신부는 아버지에게 그 젊은 흑인을 가게에서 내보낼 것을 요청했고, 신부의 요청에 화가 난 아버지는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시오!’를 외치며 그 신부를 내쫓아 버렸지. 나는 그런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 자랑스러웠어... 결국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는 그 큰 거래처를 잃었고, 당시 9살, 아니, 10살 정도 된 어린 나에게 이 사건은 내가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기억이 되었지. 그리스 이민자들 역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 서로를 대적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근면했던 우리 아버지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 아래 신념 있게 성장할 수 있었어.”

Father

“I grew up in a racist Irish neighborhood. Racist, Irish. That's redundant... I mean back then it was. But back when I grew up in the 30's, I mean it was so beyond blatant, it was everywhere. I was a Greek kid growing up and my father was a florist. We were the only Greeks within 10 miles. So, I was a greaseball... about a hundred guys said that to me. I had hundred fights, you know, I enjoyed every fight. My father was tremendous. He hired a young black man...back then they were called *Negroes*, he hired a negro to work at the store, to drive a delivery truck. A lot of people in the neighborhood came to him and said, 'you know what... in this neighborhood...' Finally the priest at St. John's, an Irish catholic neighborhood, came to us... Every Sunday I used to bring palm trees to them. I used to rent to them. I used to carry them four blocks...Palm trees for the services ... and flowers to set in them. It was a big thing for my father's store. Sunday morning I spent all my time delivering them. Anyway he came to the store and he said to my father, he said 'Mr. Lois, you do not want', he said the word *nigger*, 'niggers in this neighborhood.' My father threw him out. I mean I was so proud of him. Told him to 'Get out of my store.' You know, and we lost the account. I'll never forget it. I was about 9 years old, 10 years old. I'll never forget it. Anyway a Greek immigrant, because immigrants became very racist too. Against each other. So I grew up with a work ethic, a moral ethic ... because of my father. Hard working Greek immigrant.”

George, 너 10센트 있니?

“나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다녔던 공립학교는 나름대로 괜찮았어. 좀 보수적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선생들은 아주 멋졌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브롱스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인 DeWitt Clinton으로 진학을 할 예정이었어.

어느 날 나의 7학년 미술 선생이었던 Ida Engle이 나에게 물었어. ‘너 10센트 있니?’ ‘네, 그런데요...’ 그 당시 5센트가 지하철 편도 운임이었지. 꽃을 배달하며 나는 지하철 출입구를 매번 그냥 뛰어 넘었고, 지하철 출입구를 뛰어 넘을 수 없을 만큼 큰 사이즈의 크리스마스 장식용 나무를 배달했던 일을 제외하면 정말 한번도 요금을 내본 적이 없었지. 그녀는 나에게 ‘135가, Convent Avenue에 있는 High school of music and art에 가라’며 위치를 설명해주려 했지. 그곳은 꽃을 배달하며 맨해튼을 활보해 온 나에게는 눈에 보듯 흰한 동네였어. 그리고 그녀는 ‘이 그림들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라’ 하며 그녀 손에 쥐고 있었던 검정색 포트폴리오를 나에게 건네 주었어. 아마도 2달러는 훌쩍 넘어 보이는 포트폴리오였고—그 당시 2달러면 꽤나 큰 돈이었지—그 안에는 백여 장 남짓한 나의 그림들, 8세, 9세, 10세, 11세, 그리고 12세를 지내면서 그려왔던 내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 ‘이 그림들을 가지고 가.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도록 해. 그들은 아주 훌륭하단다.’ 알렉산더가 아리스토 텔레스의 발치에 앉아 공부한 이래로 그곳은 정말 가장 훌륭한 배움의 장소라고 할 수 있었지. 그녀의 말대로 훌륭했어.”

George, do you have 10 cents?

“I was incredibly lucky because I had a public school teacher. Public school back then, they were terrific schools. I don't know how you have a better school than I went to. It was just a normal Bronx public school. I remember they were great, I thought that they were terrific, and very strict. Mostly women. I was about to graduate Public school and I was gonna go to High school in the Bronx, DeWitt Clinton, a normal high school, you know, kind of a rough, tough high school. But so what?

She came to me and she said ‘George, do you have 10 cents?’ 5 cents was a subway each way. It was 5 cents then. I said ‘Yes, Ma'mm.’ I never paid for the subway in my life. I used to jump over, with flowers. I wouldn't even pay if I had a big wreath and I couldn't jump. She said ‘Go to the High school of music and art.’ I had never heard of the school in my life. ‘It is on 135th Street and Convent Avenue.’ She started explaining where it is. I delivered flowers in New York. I knew every neighborhood. I said ‘I know exactly where it is.’ ‘It's the High School of Music and Art. You take a test there. You're gonna do wonderfully. But you have to bring drawings’. Then she said ‘Don't worry’. And she had a string portfolio, you know, one of those, which she must have paid a couple of dollars for.

It was a lot of money back then. 2 dollars was a lot of money. And she said ‘Don't worry. Take this with you.’ And she opens it up and there was about a hundred of my drawings that she had saved when I was 8, 9, 10, 11, 12 years old. She said ‘Take those with you. They're brilliant. That's where you're going to go to school.’ I mean what a break! I mean it's a great school. I say it was the greatest school of learning since Alexander sat at the feet of Aristotle.”

어머니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다지 유창한 영어를 하지는 못했어. 6살인가 7살쯤이었어. 어머니와 내 두 누이와 함께 상당한 닭을 사기 위해 딜렌시 스트리트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지. 거기에서는 닭장수가 살아 있는 닭의 목을 비틀어 죽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았거든. 이게 1936년 일이야. 오래된 7번가 지하철, 어머니는 거기에 앉아 계셨어. 나와 내 누이들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어로 이야기 했어—어머니는 내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긴 하셨지만 늘 내가 그리스어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어—어머니와 누이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고, 바로 옆에 두 명의 사내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훌쩍 훌쩍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민자들이야, 망할 이민자!’ 내가 그들을 쳐다 봤을 때, 그들 중의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 ‘왜 너희 이민자들은 미국에 살면서 영어로 말하지 않는 거냐?’ 6살이었던 내가 이렇게 말했어. ‘Go fuck yourself!’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열차 안에 있던 30, 40명의 승객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고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둘은 당황해서 열차 밖으로 나갔고... 절대 못 잊지 ‘Go fuck yourself!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그래, 그 망할 영어로 이야기해줄게!’

6살 밖에 안된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상상해봐. 하하. 우디 앨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근사한 장면 아니겠어? 평생 못 잊을 일이야. 어머니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 그녀는 당신 자신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말이야. 아버지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말하더군. ‘우리 꼬마가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내게는 하나님이었던 아버지로부터의 칭찬이었지.”

Mother

“I remember my mother never really learned to speak terrific English. You know what happened to me once, I'll never forget it. I must have been only 6 or 7 years old. My mother took us on the subway and we are going down to Delancey Street. She used to go way downtown on the subway and buy chickens. A guy would pick up a chicken and he'd kill the chicken... in the streets... I'm talking about 1936. But we're on that subway, in the old 7th Avenue subway. They had straw seats. And my mother's sitting here, and I'm here I guess, and my two sisters... And we're speaking Greek. I had to speak Greek to my mother. She would understand me if I spoke [English, but], she said, ‘only speak Greek to me.’, ‘OK, Mama.’ They were speaking to each other, you know, quietly. And there were two guys standing up there. Two working guys I guess. And their eyes were going back and forth, looking at us like: immigrants, you know what I mean: fucking immigrants. I remember, I was 6 years old and I'm looking at them and... finally one of them said ‘Why don't you people, you're in America, why don't you people fucking speak English.’ And, I was 6 years old and I said ‘Go fuck yourself.’ And the whole car, you know, 30 people, 40 people busted out laughing. And they all started clapping... and they walked out, you know, I'll never forget, ‘cause they saw a little kid say ‘Go fuck yourself. You want me to speak English? I'll speak fucking English.’ It would be a great scene in a Woody Allen movie. It really happened to me. I'll never forget it. My mother told my father about it, but she didn't say how proud she was of me. My father said in Greek, ‘No, no, no...You're boy is a man.’ What a compliment from my father. My father was a god.”

한국 전쟁, 파시즘, 공산주의, 그리고 인종 차별주의
 “파시스트로 불리던 이승만이 기억나. 그의 부대를 말아야. ROK, Republic of Korea. 막무가내로 대문들을 부수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때리기도 하고, 그를 위한 행렬에 서게 하고. 그게 내가 기억하는 거야. 그게 내가 기억하는 전쟁. 나도 내 생존을 위해서 싸운 거였지 미국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었지.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부도 주의 깊게 관찰했었어. 그들은 나치, 파시스트들 같았어. 정말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지. 내가 아는 모든 상황들은 인종 차별주의 전쟁으로 돌변했고, 내가 속했던 부대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민간인들을 말아야. 나도 한 번 봤거든. 하마터면 나도 그 군인놈 머리에 거의 방아쇠를 당길 뻔했지. 완전히 이수라장이었어. 대포를 쏘대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누군지, 뭐가 뭔지... 신경 쓸 겨를이 하나도 없었어. 매번 10명에서 20명쯤 되는 어린 꼬마 아이들이 떼를 지어 거리를 배회했었고. 네가 미국 군인이라면, 서울 같은 곳에서는—서울에 한 두어 번 간 적이 있었어—정말 조심했어야 해.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수도 있었거든. 동물들이나 다름없었어. 부모들도 다 죽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으니까. 정말 끔찍했어, 끔찍한 전쟁이었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사실 거기 있을 권리는 없다고 느꼈다는 거지...
 한국, 정말 좋아졌지, 북한놈들은 정말 정신 나간 놈들이야. 나쁜놈들이지. 그러나 그 경험들 중 일부는 내가,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기 위해 파시스트를 옹호한다는 느낌이었어. 아주 나쁜 환경이었어. 얼마 전 메모리얼 데이에 여기 있는

Korean War, Fascism, Communism, and Racism

“What I remember going over there is that Syngman Rhee was a fascist motherfucker, you know. And when we got back behind the lines, you’d see him, his ROK troops, ROK, Republic of Korea, breaking down doors and getting people out so they could parade and they would hit them and getting them to parade for Syngman Rhee. That’s what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fighting for a... I was fighting for my life. I wasn’t fighting for America. That was ridiculous. You realized that when you were there, That you’re helping protect the Korean people, but at the same time I am looking at the government: those guys were Nazis...fascists, you know, it was really confusing. All I know is in a sense it turned out to be a racist war. Our army killed a lot of people. A lot of civilians... They didn’t openly... I did see one once. I almost put it bullet to his head... watching him do it. There was a wholesale killing going on... We were bombing... artillery everywhere. We didn’t care where, who, what, young children... Many times I’d see like 10, 20 young kids... Really young kids... All boys; and they were like rat packs, roaming the streets. And if you were G.I, like in Seoul even; I went through Seoul a couple of times; you had to be careful, they would attack you...they were turned into animals. Because they had no parents, no food. There wasn’t much food there. It was terrible. It was a terrible war. What I am saying is, I felt that we had no right to be there. So that might not be popular with what... You understand as a young person. As it turned out South Korea is doing damn good. Doing very well. And those North Koreans are the crazy sons a bitches. They’re terrible people. But I mean the experience being one of... I felt like I was, we were, defending a fascist against a communist. Fascist you know. And you were in harms’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운 연휴를 보냈지만, 난 가만히 앉아서 그 친구들, 죽은 내 전우들을 생각했지. 뇌염이 사방에 퍼져 있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많은 민간인들이 말이야. 우리 팀에서도 네다섯 명 정도가 뇌염으로 죽었지. 벌레에 물리면 그 다음 날은 거의 시체로 발견되었거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국에 주둔 중인 부대가 얼마나 될까? 젊은 한국인들의 시각으로는 미국이 잘한 거라고 생각할거야. 잘 간섭했다고 말이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남한도 공산주의가 되었겠지. 북한 사람들은 거의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결국 잘 마무리되긴 한 거지만 내가 한국에서 본 것은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경험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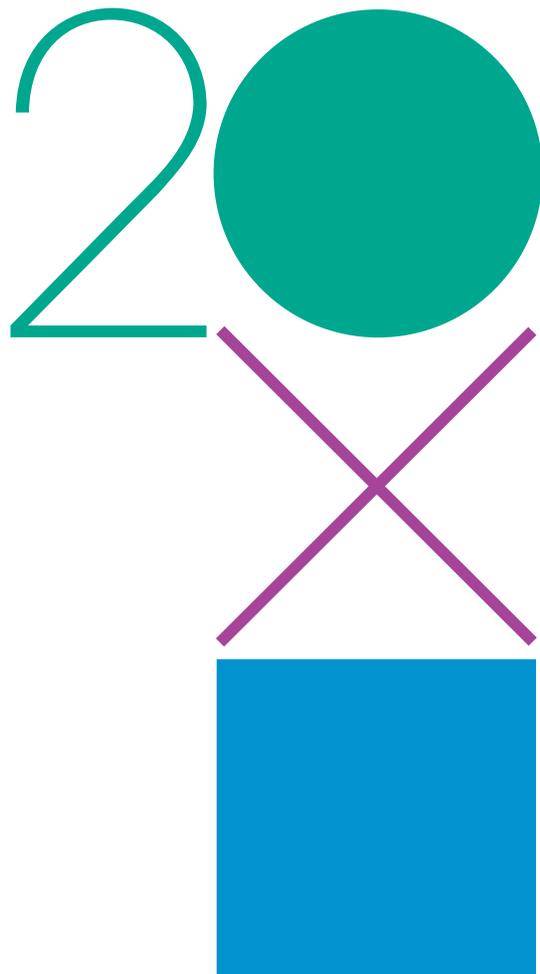
way. Friends around me were getting killed. When we had Memorial Day in America, last week... Everybody had a good time, but I sit there, I think about all the guys, all my buddies that got killed... And on top of that, Encephalitis. A lot of people dying. There must be a lot of deaths; civilian deaths. Because in my outfit four, five guys died of encephalitis... They got bit by a bug, they were like almost dead the next day.
 It’s an unending war, I mean, we still got, how many troops there? [From the] point of view [of] young Korean people, I would think that, you would think that we did well, America did well interfering, I would think. Because otherwise you’d be North Koreans...Boy those people up there are crazy... They’re truly crazy... They’re dangerous. So it’s all well that ends well. But what I saw going over there.”

**Counting today,
I have sat in
prison 3,135
days for a
crime I did not
commit.**

If I don't get a re-trial,
I have 289 years to go.
Six months ago the
'eyewitnesses' who testified
they saw me leaving
a bar in which 3 people had
been killed, admit they
gave false testimony.
Despite this, the judge
who sentenced me won't
give me a re-trial. Why?

**RUBIN HURRICANE CARTER
NO. 45472
TRENTON STATE PRISON**

1



2

1. A tiny ad in The New
York Times for Rubin
"Hurricane" Carter

2. 20 Times Square logo

'Heeeyy, Sakahachi'

“뉴욕에서 파나마 수로를 거쳐 일본까지 도착하는 데 보트로, 배로 45일이 걸렸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묻지도 마. 정말 끔찍했으니까. 우리가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거기서부터 우리는 한국으로 넘어갈 계획이었지—배에는 5천 명의 사내들이, 미군들이 있었어. 모두 남자였지. 그 5천 명의 군인들이 배 한쪽에 몰려서서는 배 아래쪽의 새로운 동양 문화를 내려 다보고 있었지. 정말 아름다웠어. 대부분이 일본인 여자들이었지. 내 눈에도 그 광경이 그렇게 아름답긴 했었지. 5천 명의 사내들이 배 위에 기대어 서서 보던 광경. 아마 4,900명 정도는 되었을 거야. 그들이 양쪽 눈매를, 양쪽 검지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며, 'heeeyy, sakahachi'라고 외치는 거야. 그 광경을 본 순간 난 마치 주먹으로 한방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그들이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속으로, '오... 하나님, 우리가 인종 차별주의자 부대를 이끌고 집단 민족 학살의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일인가 하고 말이야. 북한인, 남한인을 막론하고 죽고 죽이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성행했지.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야. 그 전쟁의 영향으로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이해가 굳어졌달까.”

'Oh, another New York Jew fag nigger lover.'

“한국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국 남부, 짐크로스사우스, 어거스타 조지아에서 기본 훈련이 있었어. 그곳은 인종 차별에 관해서는 최악의 장소였지. 흑인들을 그때까지도 목매달아 죽였으니까. 목매달아서 말이야. 고든 조지아 캠프에서의 첫날인가 둘째 날이었어. 점호 시간이었지. 'Jenkins?' 'Right here.'; 'Right

here.'는 남부 사내들의 특유한 액센트. 'Smith?', 'Right here.'

'Lois?', 'Yo.'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Yo.'라고 대답했어. 점호 시간이 끝나고, 대장이 나에게 오더니, 'Yo.'가 뭐냐? 병사!' '점호입니다.' 그가 다시 한 번 소리쳤어. 'Yo가 뭐냐고!' '남부 사내들이 Right here하지 않습니까. 저는 뉴욕에서 왔기 때문에 Yo라고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나를 위협했어. 거의 내 머리를 받아치려 했지. 그리고, 내게 이렇게 퍼붓는 거야. 'Oh, another New York Jew fag nigger lover.' 잠시 후, 나는 다시 2인치 앞으로, 내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지.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어. 'Go fuck yourself, Sir!' 그 일이 있은 후, 14주간의 군 처벌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지. 웃겼던 건,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괴롭히고 부러뜨리고 싶었던 거야. 그들은 나에게 6시간만 자게 했어.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게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게 했지. 아마도 막사에는 6시나 7시면 돌아왔고. 그들이 놓쳤던 한 가지 사실은 내가 3시간만 자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하하.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그냥 청소하며 즐겼어. 청소하는 걸 아주 좋아했거든. 쓸고 닦는 것 좋잖아. 하하하

그때 내가 본 남부 아래쪽의 인종 차별주의는 정말 최악이었어.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건 다반사였지. 거기에는 흑인의 식수대와 백인의 식수대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 말도 안되게 말이야.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내 거친 성격,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믿는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형성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때도 내가 하는 것들이 옳다는 것을 알았거든. 그리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에 재능이 있다는 것, 디자인하는 것에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았었지.”

'Heeeyy, Shakuachi'

“A terrible experience was when we were landing by boat, by ship from New York through the Panama Canal. 45days to Japan. Don't ask me how stupid that was... It was a terrible experience. Anyway, when we get to Yokohama, from there we were going to go to Korea. When we get to Yokohama, there's 5,000guys on the ship. 5,000GIs. All male. 5,000guys on one side of the boat looking down at this new culture. And it's very beautiful. A lot of Japanese... most of them are women... it was beautiful, you know. 5,000guys were leaning over the ship. 4900 of them would be going 'heeeyy, shakuachi' (Starts pulling his eyes back with his fingers). It was like a punch in the mouth. It's not that I didn't know that they were racist... I said 'Oh my God. We got a racist army going to fight a war of genocide.' I took it really personal. How immoral the whole thing was. We were killing... North Koreans, South Koreans, I mean killing going on everywhere. You didn't even know who you were killing. What it influences... it solidified my understanding of racism...”

'Oh, another New York Jew fag nigger lover.'

“Before I got there, I took basic training in the South. In the Jim Crow South, Augusta, Georgia. That's the worst place in the world. They were still hanging black people down [there]. They were still hanging them... I was there on my first or second day, in Augusta, Georgia. Camp Gordon, Georgia. And

they were doing roll call... They said, 'Jenkins?' 'Right here.' 'Right here,' you know the southern boy, 'Right here.' You know, 'Smith?' 'Right here.'

'Lois?' 'Yo.' I said, 'Yo.' And after it was over, the major comes up to me, and he says, 'What's with the yo soldier?' I said, 'Roll call, sir.' 'What's with the "Yo"?' 'Well Southern boys say [right here]. I'm from New York so I say "Yo." Then he leaned in, head-butted me, almost head-butted me. He said, 'Oh another New York Jew fag nigger-lover.' And I went back 2 inches... and I said, 'Go fuck yourself, sir.' And I did 14 weeks company punishment.

What's funny about that is... they do it so that they want to break you. And they give you... 6 hours sleep. They let you get back at 12... at midnight. Then you gotta get up at 6. So maybe you get back to the barracks at 6 or 7 in the afternoon. What they didn't understand is that I only need 3 hours sleep. And I love to clean. I do, I love to clean.

So the racism was so awful. So incredible down South. And they're literally killing people. But there's a black drinking fountain, and a white drinking fountain... I mean it was impossible. I think that all strengthened my toughness and to not accept, not only not accept racism, but not accept 'no' to anything I did... I knew what I was doing was right. And I knew that I had a talent for communicating, a talent for designing.”

조심스러운 창조?

“한번은 Steven Heller의 청탁으로 그의 학교(SVA)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 스티브는 그래픽디자인의 역사에 대해 가장 넓고, 깊은 견문을 가지고 있는 나의 절친한 친구이지. 일 년에 한 번씩은 그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곤 해.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어. 어떻게 그들이 이곳에서 배우는 게 가능할까... 나라면 다른 나라에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을 텐데. 왜냐면 그 문화를 이해해야 하니까 말이지. 내가 영국에서 디자이너가 되는 일은 생각도 못할 것 같아. 혹시 된다고 해도, 내가 광고 캠페인을 영국에서 한다고 치자. 어느 적정 수준의 언어를 한다고 가정해. 그리고 나는 물론 그것이 옳다고 믿지.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언어가 괜찮은지 묻게 되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아주 어렵지.

분명히 인터내셔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언어가 있긴 하지. 며칠 전 누군가와 글로벌 광고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만약 내가 20개국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어야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야—이건 내 안티슬로건이기도 해—그런데 말이야, 조심하는건 말이지, 죽는거야... 조심할 수 있어. 그리고 창조적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조심스러운 창조?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조심해야 하는 거야. 덴마크에서는 이게 먹힐까 하며 고민하기 시작해. 문제는 너 스스로가 불확실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의 문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거든. 네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아주 파워풀한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봐. 아마도 단어들, 카피들, 그들을 네가 번역하자면, 살짝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 그 아이디어가 보통 시각적으로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야, 그런데도 불확실한 건... 불확실한 건... 글썄...

Cautious creative?

“I was giving a class for Steven Heller. He’s a good friend of mine. He knows more about the history of graphic design than anybody in the world, anybody ever. He gets me in once a year...to give a class. A lot of kids in his class are Korean, Chinese, Japanese. I always wonder how they could learn... I don’t think I could be a designer in another country. You gotta understand the culture. You know... I mean I don’t think I could be a designer in England. I could be a designer, but I mean... What I am saying is if I get an ad campaign in England, I do an ad campaign... I have a certain language, and I say something... I know that’s right. I know... if I did it in England, I’d say, gee, uh, is that language okay here...? It’s difficult. It’s difficult. Very difficult. There isn’t an international design language, but there’s an international mass communications language. I had somebody talking to me the other day about global advertising, if you had to sit down and you knew you had to do a campaign, that worked in 20 countries... yeah, I’d have to be careful. And of course, it’s my anti-slogan. I said, ‘If you’re careful, you’re dead.’ You can be cautious, you can be creative, but you can’t be a cautious creative. So all of a sudden, I have to be careful. I say, well, ‘cause I’m not sure it’s gonna work in Denmark. I mean, ‘cause you gotta be sure of your culture. You can come up with one that you think is basically very powerful visually, and maybe the words, when they’re translated, don’t need a sharp turn of language, you know, so you can come up with an idea visually, and usually visually you’re okay, globally, but even then you’re not sure... even then you’re not sure... I don’t know if an idea I do works in Turkey. I don’t have a clue. So, to me, I try to lay off

그 아이디어가 터키에서도 먹히는 아이디어일지는...

나도 확실한 근거는 없어. 단지 나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100% 확신하지 않은 일에 손을 대고 싶지는 않거든. ‘이 아이디어가 바로 당신을 위한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지.”

대중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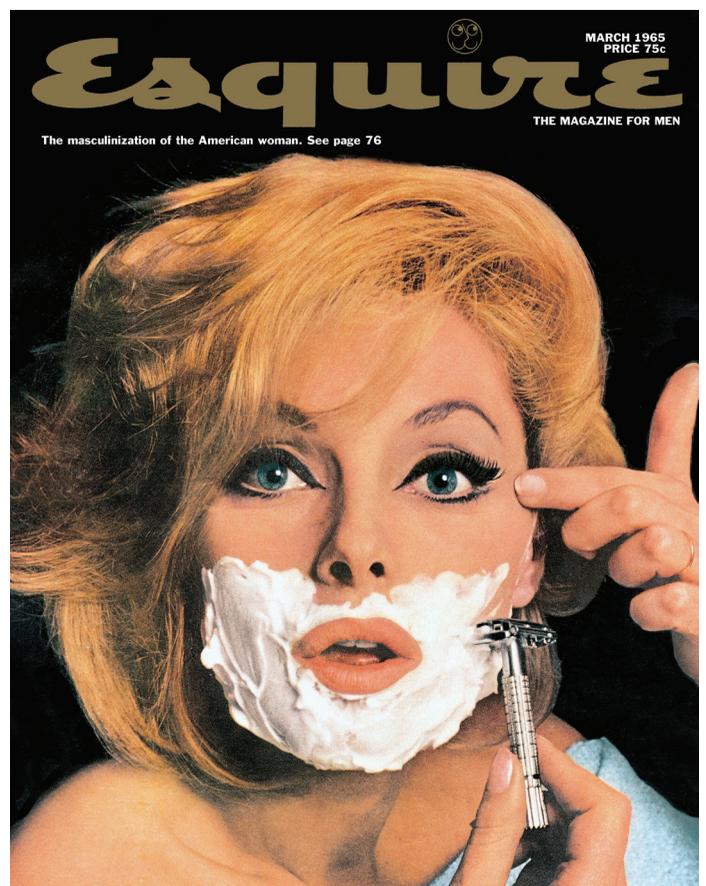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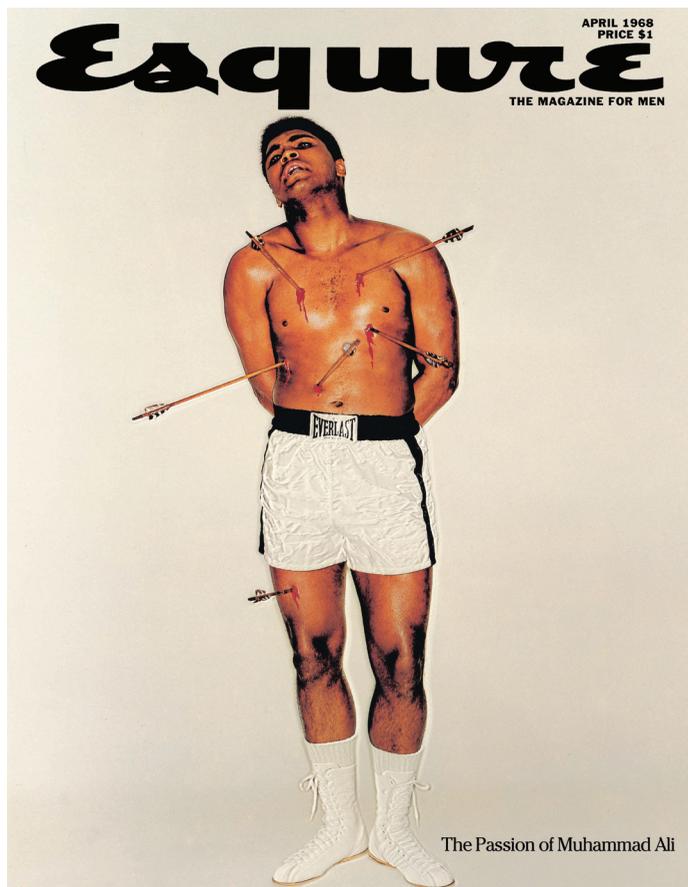
“내가 60년대에 작업한 <에스콰이어> 표지는 그 당시 모두가, 전 세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작업들이 영구 전시되어 있는 MoMA에 가끔 들르곤 해. 거기엔 늘 25~30명쯤 되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온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북적대지. ‘이게 누구지?’ ‘저 산타클로스는 누구지?’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비틀즈 가발을 쓰고 있는 저 사내를 알아야지. 에드 설리번! 비틀즈를 자신의 TV쇼에 소개함으로써 그들을 미국에 소개한 장본인이자. 그 당시에는 모두 ‘와우’ 했어. MoMA에 있던 아이들이 그것을 보며,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건, 그 아이들이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이지.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모두가 그 시기의 문화를 이해했다는 거야. 그 시기의 미국 문화. 그때 그들은 에드 설리번을 이해한 거지.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인터내셔널한 작업을 요청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거야.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 문화를 이슈로 논쟁을 시작한다면, 내가 과연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막무가내로 ‘너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 미국에서 작업한 내용에 대해 네가 뭐라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Fuck You! 왜냐면 내가 이 문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니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

it. I don’t want to work on the stuff that I’m not 1000% sure. When I do something, I say, ‘This is right for you. I promise you.’”

Mass Culture

“Well, for instance, the *Esquire* covers I did in the 60’s. It seemed that back then everybody, I mean, I think every country understood that. They’re in the Museum of Modern Art, in the permanent installation. I’d go... every once in a while, and there’d always be 25-30 kids always crowded around it, from all over the world. Taking pictures... and ‘Who’s that man?’ ‘Who’s that man playing Santa Claus?’ ‘Who’s this?’ ‘Who’s that?’ You gotta know who’s the man with the *Beetles* wig. The man with the *Beetles* wig was Ed Sullivan...The man who put them on his television show. So in America, when they saw this guy with... with the wig on, with the *Beetles* wig, I mean, everybody went ‘Wow!’... when the kids were looking at it saying ‘What is that?’...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But the point is, back then everybody understood the culture. They understood Ed Sullivan. So when you get to magazine covers and something where you really rely on something graphic, you can. If somebody came to me and begged me to work on something global... I’d like to think I would do it. But I would never feel...like... If somebody came up with an argument against it, because of the culture, what do I say? ‘You’re full of shit?’ I don’t know if you’re full of shit. But if you say something about what I do in *this* culture, ‘Fuck you.’ I know I’m right. You can’t, you can’t bullshit a bullshitter.”



1. "The most iconic image of the 1960s was George Lois' *ESQUIRE* cover depicting Ali as Saint Sebastian, trying together the incendiary issues of the Vietnam War, race, and religion. The image is so powerful that some people remember where they were when they saw it for the first time." The Associated Press

2. The issue of *ESQUIRE* with Andy Warhol drowning in his own soup

3. From Lois' cheeky 1965 *ESQUIRE* cover commenting on the oncoming women's liberation movement

〈에스콰이어〉 표지들 at Museum of Modern Art

“당시 MoMA의 건축/디자인 부서의 디렉터였던 Paola Antonelli와 나는 Lou Dorfsman의 대규모 벽 작업을 어떻게 MoMA에 도네이션할 수 있을지에 관해 고민하는 중이었고, 뮤지엄 안의 모든 디자인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유로 그 작업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들을 고려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Paola가 나에게 물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당신의 〈에스콰이어〉 표지들을 뮤지엄에 넣었으면 좋겠어. 당신, 기부할 수 있겠어?’ 대부분의 〈에스콰이어〉 표지들은 대부분이 사진이 주는 의미 그 이상이었었고, 이미지와 콘셉트의 합성이었지.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 ‘한가지 이야기해 들 것이 있는데, 어쩌면 승인위원회에 이야기를 꺼내 보지도 못할지 몰라. 왜냐면 아트가 아니어서 말이야.’ ‘난 아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 그런데 만약 승인이 떨어진다면 정말 다 기부할 생각은 있는 거지?’ ‘Absolutely!’ 2주쯤 지난 후에,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해서 그녀가 〈에스콰이어〉 표지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의 상황을 흥분하면서 설명했어. 전체 승인위원회 멤버가 12명이었는데, 그중 10명 정도가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표지디자인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도 정말 흥분되더군. 그 표지디자인들은 그 시대의 대중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으니까. MoMA의 승인위원회 회원들은 대부분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토론에 언급된 표지들 중의 반 이상은 Paola 자신도 몰랐던 것이라고 말하더군. 어떤 회원은 Andy Warhol이 나왔던 표지를 Andy Warhol을 캔 수프에 빠뜨리는 재미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고, 다른 회원은

Esquire Covers at MoMA

“...Paola Antonelli, she is the head of the Architecture and Design section, [She’s] Italian.
Lou Dorfsman, who was a great art director, had designed a wall for a kitchen. It’s hard to describe. It’s sectional, like sixty feet long... the wall... kind of like a Louise Nevelson kind of thing, but his way with objects instead... Anyway this masterful thing, he did it with Herb Lubalin. And I was trying to get her to figure out how we could donate it to the Museum of Modern Art so it could be there... So I went to talk to her about it. But she couldn’t do it because the museum, everything is already designed. Anyway, while I was there she said, ‘You know what I really would want? What I really would like?’ ‘More than Lou Dorfsman’s Goddamn wall?’... And she said, ‘Yeah.’ ‘What?’ ‘Your Esquire covers in the museum. Would you donate everything?’
Because a lot of them are not just photographs. They were images that I’d put together for work. so I said, ‘Sure.’ And she said, ‘But I gotta tell you something. I may not be able to talk the acceptance committee... [into taking them], you know, because it’s not art.’
I said, ‘Well I think it’s art.’ She said “I think it’s art, too.’
I said, ‘God bless you.’ So she said, ‘OK, so you’ll donate all?’
I said, ‘Absolutely!’ so she said, ‘OK, I’ll get back to you in a couple of weeks.’
So a week later she called me up. [She told the acceptance committee.] ‘What I’m talking about is George Lois’s Esquire covers in the 60’s.’ And she said there were 12 people in the acceptance committee. She said 10 of them jumped up and said, ‘Oh what an idea!’ And they started to describe the covers. Said everybody in there was saying what their favorite

Andy Warhol이 자신의 명성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라고, 또 다른 회원은 아마 그 둘 다를 의도했다고 분석했다더라고. 토론은 약 45분간 진행되었고, Paola 역시 매우 흥분되고 신이 났었다고 하더군. 나에게도 정말 짜릿하고 신바람 나는 순간이었어.”

내 가슴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던 말

“이건 정말로 중요한 성명서야. 돌리지 않고 이야기하지. 너 스스로가 되라고!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정말로 네 자신이 되어야 해. 네 유산을 자랑스러워 해야지. 그게 어떤 유산이든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있겠나. 왜 네 유산을 자랑스러워 하지 않아? 네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도록 해. 네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라고. 널 이만큼 자라게 한 가정 교육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라고. 만약 겸손이 너의 집 가훈이면 그럴 자랑스러워해야지. 왜? 멋지지 않아? 네가 게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슴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어. 편집자들이 ‘음... 이거 너무 뻘하지 않아? 너무 뻘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성장하면서 ‘이름을 바꿔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흑시라도 ‘미국 사람처럼 행동해 볼까?’ 너무나 많지. 이런 일들은...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절대로 뻘한 게 아니지. 많은 젊은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읽고 고마워 해, 그리고 말하지 ‘맞아, 그래, 그도 내 편이야’라고. 나에게도 정말 중요했어. 20%의 젊은 친구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아마도 50%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조차 모르지.”

cover was. She said they went crazy when they heard. ‘What an idea!’ So it was very interesting, you know. Because it was covers that affected the culture... of some very intelligent people... She said, ‘They spent about 45 minutes talking about your covers.’ She said, ‘I didn’t know half of them.’ And they were analyzing some of the covers... ‘No, I think what he meant...’
And she said they started talking about the Andy Warhol cover. Somebody said, ‘Oh what a funny idea, let’s dunk him in the soup.’ Then somebody else got up and said, ‘No, no, no. He was saying that... he has him drowning in his own fame.’ And then somebody else said, ‘Well actually, it’s a combination of both...’ She said it was thrilling, you know. It was really very exciting, you know.
It was a fun time.”

I had to get that off my chest first

“Yeah, it’s a very important statement. Let’s get something straight, you know. Be who you are. That’s not bullshit. I really mean it, be who you are. Be proud of your heritage. What heritage would you not be proud of? I mean, why wouldn’t you be proud of your heritage? Be proud of your sex; be proud of your parents; be proud of your upbringing. Be proud if you have a humble, humble, humble upbringing. So what? Terrific. You know. If you’re gay, God bless you.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I had to get that off my chest first. They [his editors] said, ‘Why are you saying that? It’s obvious.’ I said ‘It’s not obvious. It’s not obvious.’ A lot of young people grow up and they think ‘Maybe I should change my name, and maybe I can do this, and maybe I should act more American...’ It’s an important statement... it’s not

Paul Rand

“고등학교 시절, 아트디렉터 Paul Rand는 내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 중 하나였어. 아마 그가 그때는 스물일곱 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 그는 그의 광고에 카피를 쓰고, 그의 광고를 디자인하고, 다른 로고디자인 등의 작업도 했어. 그의 작업은 정말 훌륭했지. 그의 책, 『Thoughts on Design』은 이미 수백 번을 읽어서 책이 다 너덜너덜할 정도지. 우리는 서로 다른 작업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를 정말 흥분하게 만든 건 그가 그의 의지에 따라 작업의 여부를 결정했던 점이야.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작업을 거절했던 그의 신념, 그리고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한 작업들을 통해 수익을 내던 일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 아마 너도 까탈스러운 그가 사람들을 그의 사무실에서 내쫓은 일화를 접한 적이 있을 거야.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아트디렉터는 그다지 파워풀하지 못했는데 말이지. 어떤 에이전시에서건 아트디렉터는 카피라이터나 어카운트 담당자를 기다리고, 그들은 아트디렉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 ‘레이아웃 좀 해주지, 자... A, B, C, 아니면 D’ 콘셉트에 관련된 작업에 관여하는 건 그때의 아트디렉터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했어. 그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요?’라고 물으면, 너도 알다시피, ‘여기에 로고를 넣어 줘’라고 그들이 말했었거든. 그 당시 Paul Rand는 유일하게 영향력 있는 아트디렉터였어.

Paul Rand의 작업이 많은 것을 그려내고, 또 그려내서 완성하는 작업이었다 치면, 내 디자인은 아이디어야. 아이디어를 훅- 내려 놓는거지. 그것이 내 디자인이기도 하고.

모하마드 알리 세인트 세바스찬! 캔 수프 안에 빠진 앤디 워홀!
No designing. 디자인이 바로 아이디어라는 거야. 내 아이디어를 가만히 응시해 봐, 그게 바로 디자인이야. 내 디자인을 가만히

fucking obvious. And a lot of young people will read that and really appreciate it and say, ‘Oh, OK, he’s with me.’ It’s really important to me. 20% of young people out there ain’t sure what they are. Maybe more. 50%. They’re not sure who they are, where they are, what they are.”

Paul Rand

“One of my influences too was when I was in high school. I was 14 and there was an art director named Paul Rand, who was at that time 27, something like that. He wrote his own ads, designed his own ads, and he did other logos and stuff. And his work was terrific, but what was great about him, he did a book came out called *Thoughts on Design*. I have it. It’s in tatters. I’ve read it a million times.

And it wasn’t so much his work itself. My work is nothing like his, but what thrilled me was this guy didn’t take any shit from anybody. He was making a living. You heard stories about him throwing people out of his office. He was the only powerful art director I had ever heard of.

The art directors or designers were not powerful in America. In any ad agency in America, the art directors would sit in their room waiting for a copywriter and/or account guys would come in and say, ‘Lay it out. Do a lay out. A, B, C, or D.’ So the art directors were in no way, shape, or form involved in a concept of anything. They just took something and said, ‘OK. What can I do with it?’ You know. ‘I’ll put the logo here’... But Paul Rand was doing his own stuff. The thing was that this guy Rand, what he meant to me...but *my* designing is, I get an idea. And I put the idea down. That’s the design. Mohammad Ali/St. Sebastian. (Slams hand on table) Andy Warhol drowning in a can of soup... (Slams hand on table)

보면, 그게 바로 아이디어인 것을 알지. 군더더기가 없어. 거기엔 디자인이라고 불릴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 내가 훌륭한 디자이너냐고? 그럼! 훌륭한 디자이너지, 왜냐하면 훌륭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훅- 내려놓으니까. 하하. 심플한 것, 그리고 계속 파워풀하게 만드는 것. Paul Rand가 내 작업을 보면서 언젠가 그랬어. ‘한 번도 자네 같은 놈을 본 적이 없네.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훅- 하고 내려놓는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디자인이지, 진짜 좋은 디자인!’ 그는 내 작업을 이해했어. Paul Rand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어쩌나 흥분되던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오긴 했지만 그는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아트디렉터와 카피라이터

“Bill Bernbach, 그는 50년대 꽤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였고, Paul Rand가 일하던 Weintraub라는 광고 회사에 초빙됐어. 회사 사람들은 그렇게 불려 온 Bill Bernbach에게 ‘조심해, Paul Rand가 당신을 사무실 밖으로 던져 버릴 수도 있어.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뭐’ ‘잘 버텨봐’ 라고 충고했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Paul Rand와 Bill Bernbach는 결국 호흡이 잘맞는 한 팀이 되었어. Bill Bernbach는 그때 깨달았지. ‘오 마이 갓, 훌륭한 그래픽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니, 광고가 훨씬 좋아졌어’ 광고는 정말 좋아졌고, 그것이 오늘날의 아트디렉터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지. Bill Bernbach는 곧 Doyle Dane Bernbach라는 광고 회사를 시작했어. 그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내였지. 왜냐하면 훌륭한 디자이너 Bob Gage—카피를 이해하는 디자이너—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여성 카피라이터와 팀을 이뤄 모두를 깜짝 놀래키는 광고를

No designing. The design is the idea. You look at my idea and that’s the design. You look at my design, that’s the idea. There’s nothing added. There’s no so-called *designing*. Am I a great designer? Yeah! I am a great designer ‘cause I... get a great idea and I put the idea down.

Keep it simple and keep it powerful. And Rand, he was watching my work and... he was saying to me, ‘I never saw anything like you. You get an idea. You put it down. And that’s the fucking design,’ he said. ‘God damn that’s good!’ He understood. It was thrilling when this guy was telling me how good I was... I hear it from everybody, but he was such an important figure in my life.”

Art director & Copywriter

“So this Bill Bernbach, (later of) Doyle Dane Bernbach, was a copywriter in the 50’s. And he was lucky enough to go to an agency called Weintraub... and Paul Rand worked there doing his own stuff and they said to him, you know, ‘Be careful... He may throw you out of the office, and if he does, that’s it.’ You know, ‘That’s life. Try to work with him...’ And what happened is... they got along OK. Rand didn’t throw him out, and Bill Bernbach had an epiphany, ‘Oh my God. We could sit down with a graphic designer who knows what he’s doing... the advertising could be much better.’ Duh. No shit. Of course. And that was the birth of the modern art director. He started Doyle Dale Bernbach and he was the luckiest guy in the world ‘cause he started with a guy named Bob Gage, who was a terrific designer and understood copy, and who worked with a woman copywriter there, and they did advertising that stunned everybody. He was the first modern art director.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art director-writer team...”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그 케이스들은 아트디렉터와 카피라이터를 팀으로 묶는 형태의 작업을 유행시켰지. 내 경우 특별히 카피라이터와 일하지는 않았어. 나는 그들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트디렉터가 이 시점을 계기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나도 Bill을 위해 일했었지. 그곳에서 일하는 건, 충분히 멋졌어. 그러나 내가 28세쯤 되던 해, 그 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 내가 Bill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George, 큰 실수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는 딱 하나뿐이야.’ ‘글쎄요. 더 있겠죠. 훌륭한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에이전시를 꾸려간다면요. 이 에이전시가 훌륭한 것은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비즈니스나 파이낸셜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주지 않으니까.’

1960년 첫 주에 나는 내 광고 회사를 시작했고, 2주 후에—하나님께 맹세하건대—이 회사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죽기엔 너무 젊지.’

“Papert Koenig Louis, 이 에이전시를 시작한 건 1960년. 솔직하게 인정하자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나 했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주식 공개의 아이디어에 솔깃했거든. 광고 업계에서는 우리 회사가 주식 공개의 첫 주자였고 좀 흥분되고 신바람도 났었지. 그러나 그것이 아주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달은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의 두 동업자는 우리가 주식을 공개한 후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우린 투자자들에게 빚을 진 거네. 광고들이 점점 더 조심해져야 하겠어’ ‘뭐라고? 자네들 뭐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목이 졸리는 기분이었어. 어느날

I haven't worked with a writer in years. I don't need it. But the point is, the point is, the art director became important conceptually...

And then I went to work for Bernbach. I loved it there. Something made me want to leave and start the second creative agency, when I was 28, I think I was.

And when I told him I was leaving he said, 'George, you're making a big mistake. There can only be one creative agency in the world'. I said, 'Well. No...There can be more... as long as terrific creative people are in the agency. The only reason that Doyle Dane Bernbach is a great agency is because you run it. And you don't let the business guys run it, you don't let the financial guys run it... you decide... the advertising's gotta be our way.' He said, 'I don't think so, George...'

I started the first week of 1960 and two weeks later, I swear to God... everybody was talking about us.”

‘I'm too young to die.’

“The agency that I started in 1960, I think we made a big mistake. I got to admit, when they came up with the idea, I said I was OK for going public. It was the first agency that ever went public in the advertising business. And it was unheard of. And I liked the idea when they told me about it because I liked the fact that we were saying that ad agencies should go public because we serve companies. When I heard about the idea I said, 'You know, that sounds like fun.' But it was a big mistake because I found out that everybody around me... my two partners, when we went public, all of a sudden they were saying, 'Now we owe to our investors that our advertising becomes more careful.' And they were using those words. 'Huh?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How'd we get

갑자기, 그렇게 성공적으로만 보였던 주식이 급증할 때마다 더 많은 걱정들이 밀려왔지. 그때쯤 난 파트너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죽기엔 너무 젊다’. 돌이킬 수가 없었지. 1967년 내가 그 회사를 떠날 때, 정말 나는 광고계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듯했어, 마치 신문의 충격적인 머리기사처럼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지. Papert Koenig Lois는 성공도 했고 주식도 상장하고 모든 게 잘 굴러갔으니까. 몇 년 후 그 회사가 폐업을 했고, 그들이 마치 영혼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어. 재능이 많았던 친구들인데, 영혼을 잃은 거야. 돈에 말이지. 돈을 위해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라고.”

용기라고 불리는 것.

“한 달 전쯤 그레이 광고 대행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 대규모 대행사 중에 하나지. 한 600명쯤 되었지. 내 작업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들 역시 작업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그 작업을 보여줘. 그런데 답답했던 건 ‘바로 이거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쪽 것은 어떤가요?’라고 하는거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 ‘내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작업을 하고, 그것을 프리젠테이션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 ‘이 작업은 정말 훌륭해! 내가 보장한다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카운트 담당자들, 누구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이 없다는 거야. 다들 서로를 쳐다보며 멧쩍게 웃더라고. 그건 정말 아니지. 그건 바로 너희들이 너희 작업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의미해. 네 작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넌 결코 훌륭한 작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 내가 최근에 쓴 북, 『Damn good advice』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

here?’ They really choked. And all of a sudden, the more successful the stock was, the more they worried... at which point I said, ‘I’m too young to die.’ ‘Cause I couldn’t change it... So when I left in 1967, I shocked the advertising world. I mean it was like headlines.

A lot of people were saying, ‘Crazy!’ The company Papert Koenig Lois was successful, the stock was doing well, everything was great. I just didn’t want to... and what happened is, in a years’ time, they went out of business... And I think they lost their soul. And they were talented guys, but they lost their soul. To money. You can’t do the work for the money, you gotta do the work for the work.”

It's called Courage.

“About a month ago I had to give a talk at Grey Advertising, which is one of these gigantic agencies. And there were 600 people there. I’m showing my work and I’m talking about work. They do work, then when they show it to a client, they don’t say, ‘This is it.’ They say, ‘Uh, what do you think of this? Uh, how about this one? How about that one?’ I said, ‘I do something and I show it to a client, and I would say, ‘I guarantee this Goddamn thing...’ I mean it. Not one of you motherfuckers out there would say that. Have any of your account guys ever... said, ‘This is gonna work! I guarantee it!’ And they were kind of laughing at each other saying, ‘No. Of course not.’ ‘Because you don’t believe in your work! You don’t do great work, you don’t believe in your work.’ And that’s why the whole thing is, the book (*Damn Good Advice*) is telling talented people to be confident of their work. I can’t get somebody who’s not talented to do great work. But there are a lot of talented people that don’t create great work. And

자신감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이야기야. 재능 없는 사람에게 훌륭한 일을 기대하는 건 뭐... 나도 할 수 없다고 봐. 그러나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 좋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그들은 그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삶에 대해 투덜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

‘와우... 이제 난 36세가 되었어... 내가 재능을 가진 것은 확실한데 말이지... 이제 나도... 누가 뭐라건 간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그 확신을) 옹기라고 하는거야. 네가 훌륭해지기를 바란다면 말이야. 내가 『Damn Good Advice』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만약 그냥저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도 상관하지 않겠어.”

아마 그저 먹을 만할지는 모르겠어...

“내 커리어를 주욱 돌아보면, 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해 왔던 것 같아.

‘내가 맞다는 것을 알아. 이놈들이’ 자만이 아니라, 자신만만함... 그리고 그것이 『Damn Good Advice』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옹기에 관한 것이지. 물리적인 옹기 역시 그것의 일부이기도 해. 네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옹기 말이야.

매주 두세 통 정도 되는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오, 이 작업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질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도 하고, 나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그 거래처를

they sit there and they moan all their lives... people say, ‘You know, I’m now 36 now, and I been at this, I swear I really do have talent, but I’ve accepted, my life...’ It’s called Courage. If you wanna be great. If you’re just OK and you’re making a living, I ain’t knocking it. That’s why I say *Damn Good Advice* is for people with talent.”

Maybe it tastes all right...

“So all through my career: ‘I know I’m right and fuck you’ I say it’s cocksure. Not cocky, cocksure... and that’s why a big part of my book is, I talk about courage. And physical courage is a part of it. But courage to protect your work...

I get maybe... 2 or 3 emails a week. Somebody will say ‘Oh I love this ... I love this ...But there’s one of the things you say Mr. Lois’, He said, ‘You shouldn’t work for bad people. Now you gotta understand that sometimes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You have to work with bad people, and you have to work with bad clients. Because if you didn’t do it, you know, you’re gonna lose your job. And if the agency doesn’t want to lose an account, so sometimes people have to...’ I say, ‘No, no. You just told me that you can never be great.’ ‘But you know what, sometimes I have to eat shit... sometimes I have to do shit.’

‘No, no, I’m telling you. You can never...

Nobody can make you do bad work.

Nobody can make you do one thing bad. Not one thing.’

You say ‘Well forget about that. Who cares? I’ll do it.’

That’s the beginning of the end. That’s the beginning of the

end. You have to have courage to say, and I don’t mean you

have to be a killer, but you have to have the courage to say, ‘I’m

않고 싶지 않다면 때때로 직원들은 그것을 감수...’

나는 말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 너는 지금 나에게 자신은 결코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때때로 맛있는 걸 먹어야 할 때도 있고, 거지 같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지, 아니야. 결코... 아무도 너에게 거지 같은 작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그 누구도 너에게 그 일이 하찮든, 하찮지 않든, 질이 나쁜 일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작은 하나라도.

네가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 ‘에이 관두자, 누가 상관해?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이것이 바로 끝으로 가는 시작이야. 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

너보고 살인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옹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너의 상사든 그 누구에게든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또는 ‘나는 이 따위 말도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옹기. 너의 상사든 그 누구에게든

‘나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내가 이 거지 같은 일들을

하려고 이 광고 회사에 있을 바엔, 차라리 다른 일을 찾겠어’

그런데 생각해 봐, 다른 일이 찾기 쉬울 것 같아? 그렇지 않지.

언제 그게 쉬운 적이 있었나? 절대 그렇지 않아.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로 해야 하는 것들을 하라고.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면 말이지.

혹시 네가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말이야, 그저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면 그 거지 같은 것들을 먹지 그래...

맛있냐고? 아마 그저 먹을 만할지는 모르겠어...

아니, 나는 절대로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not going to do bad work.’

If you work in an agency, you can say to the creative director or whoever the guy is over here... ‘No. Go to somebody else. I’m not going to do it.’

And you should be saying to yourself, ‘If I work at an agency that’s willing to do this bad work, I better find another job.’

Is it easy to find another job? No.

Was it ever easy? No.

You gotta do what you gotta do. I’m talking about if you want to be great. I’m not talking about if you want to make a living. If you want to make a living, eat shit.

Maybe it tastes all right... I don’t think so.”

Special **Joseph Burwell**

Thanks to 조셉 버웰은 1970년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나 버지니아주 남서부에서 성장했다. 그는 처음 사바나 예술대학(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건축학을 공부했지만 이후 스튜디오 아트로 전공을 변경해 1993년 사우스 캘리포니아의 찰스턴 대학(College of Charleston)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뿐 아니라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이집트, 캐나다,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전시를 진행해온 그는, 2011년에는 뉴욕 예술진흥원(NYFA)에서 회화/판화/북 아트 부문 펠로우십(fellowship)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브루클린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진행 중이다.

Joseph Burwell was born in Iceland in 1970 and raised in southwestern Virginia. He began to study Architecture at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but changed his major to Studio Arts and received his Bachelor Degree at the College of Charleston in South Carolina in 1993. Joseph has shown in New York, Switzerland, Finland, Norway, Ireland, Egypt, Canada, South Korea, and at different venues across the US. He is a 2011 NYFA fellow in Drawing/Printmaking/Book Arts.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Brooklyn.